

# 개미 투자자들은 열공 중

증권사 비대면 채널 인기  
관련 유튜브 2~3천명 몰려  
주식 관련 도서 서점가 점령  
신규 개인투자자 겨냥한  
수수료 면제 등 이벤트 다양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변을 거듭하면서 '개미'라 불리는 개인 주식투자자들을 위한 서적이 인기를 끌고 있다. 2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한 대형 서점.

국내 중시가 연일 물러코스터를 타는 듯 불안이 지속되면서 '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폭락장을 '인생 역전'의 기회로 삼으려하고 있다. 개미들의 주식 매수가 급증하면서 '동학 개미 운동' '동학 삼전(삼성전자) 운동'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짬짬이 시간을 내 영상 강연과 책에 파고들며 주식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증권 강연회와 세미나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채널에 몰리고 있다.

증권사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세미나에는 한꺼번에 2000~3000명이 시청하며 주식 열풍을 실감케 하고 있다.

1만2000명 구독자를 거느린 NH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은 매일 투자정보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동영상 올리고 있다.

국내외 주식 이슈와 뜨는 콘텐츠 산업 'OTT', 원격진료, 조지금리 시대 부동산 시장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개인 투자 열풍은 서점가 풍경도 바꿨다.

났다. 재테크 관련 서적 순위에서 주식 투자는 부동산을 따돌리고 상위권을 포섭하고 있다.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윤재수 지음)는 지난 달 셋째 주 영풍문고 베스트셀러 19위에 오른 뒤 같은 달 넷째 주 14위로 5계단 상승했다.

증권사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해 각종 혜택을 내걸고 개인 투자자 잡기에 나섰다.

처음 주식에 투자하는 '주린이'(주식+어린이)를 겨냥한 이벤트를 앞다퉈 내놓았다.

키움증권은 신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현금을 최대 4만원까지 지급하고, 유진투자증권은 온라인 신규 고객의 예수금을 연 5% 이율을 적용해 현금을 준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 위탁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주식, 펀드, 발행어음 등을 살 수 있는 온라인 금융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비대면 주식 계좌 수는 전월보다 7.4% 증가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뱅크 연계 비대면 주식 계좌는 10.1% 증가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4050주도’ 광주·전남 주식투자자 31만명

전국 5%...전년비 12% 증가  
한전 43만명 보유 주주수1위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주식투자자는 3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2.2% 늘었지만 1인당 평균 소유 주식수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거주 주식투자자(중복투자자 제외)는 광주 16만8756명·전남 14만5090명 등 3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투자자 수 27만7859명 보다 12.2% 늘어난 수치다.

지역 투자자 수는 전국 618만명의 5% 수준으로, 광주는 2.7% 전남은 2.3%를 차지했다.

보유 주식 수는 광주 10억6800만주, 전남 7억5700만주 등 전체 대비 각각 1.1%, 0.8% 비중이었다.

### ■ 광주·전남 상장법인 주식투자자 현황 (지난해 말 기준, 단위:명)

순위	회사명	주주수
1	한전	43만2306
2	금호타이어	2만9300
3	보해양조	2만7322
4	금호산업	2만6881
5	오이솔루션	2만3336
6	우리종합금융	2만1090
7	한전KPS	1만9879
8	파루	1만7112
9	고려시멘트	1만2435
10	대우에이텍	1만1166

〈자료:예탁결제원 광주지원〉

1인당 평균 소유 주식 수는 전년(5871주)과 비슷한 수준인 5858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소재 상장법인 45개사(광주 23개·전남 22개) 가운데 주주를 1만명 이상 거느린 곳은 11개사로 나타

났다. 지역소재 상장법인의 주식투자자는 한국전력공사가 43만23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호타이어(2만9300명), 보해양조(2만7322명), 금호산업(2만6881명), 오이솔루션(2만3336명), 우리종합금융(2만1090명), 한전KPS(1만9879명), 파루(1만7112명), 고려시멘트(1만2435명), 대우에이텍(1만1166명), 우리손F&G(1만78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지역 주식투자는 50대가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주식투자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8만3887명(27.0%) 5억9939만주(3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주주 7만6665명 ▲60대 5만464명 ▲30대 4만3317명 ▲70대 2만996명 ▲20대 1만8242명이 뒤를 따랐다. 20세 미만도 4519명(1.5%)이 436만주(0.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은행, 코로나19 피해 대출지원 이상 無



송중욱(왼쪽) 광주은행장이 2일 광주 매월동 지점을 찾아 코로나19 피해 금융상담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송중욱 은행장 목포·여수 등 영업점 잇따라 방문

광주은행은 송중욱 은행장이 지난 26일부터 3일까지 광주·목포·여수·순천지역 영업점을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대출지원 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145개 모든 영업점에 코로나19 피해상담 전담창구를 마련해 특례보증 상담·서류접수·현장실사·약정 등의 업

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 광주신용보증재단 6개 지점에 직원 12명을 파견해 보증 업무를 협조하고 있다.

송 행장은 지난 26일 광주 영업점을 점검한 뒤 2일 목포·영광, 3일 여수·순천지역 영업점을 잇따라 방문한다.

현장에서 송 행장은 신속한 금융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을 격려하고 금융 애로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다.

그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에 막힌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며 "우리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광주은행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환율 급등에 환테크 투자상품 인기

광주은행 해피라이프 외화적금  
코로나19 후 388.5% 가입 증가

코로나19 불안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여유 자금을 달러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달러를 사모아 보관하는 '사재기' 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달러 추가연계증권·펀드 등 상품에 수요가 몰리면서 '환테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보편적인 '환테크' 투자상품중 하나가 외화예금이다. 환율 등락에 따라 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달러화 통장'으로 안전 자산을 만드려는 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8일 판매를 시작한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 외화적금' 가입 계좌는 3월 말 현재 3527좌를 기록했다. 누적된 가입잔액은 미 달러 98만4314달러(원화 12억원)에 달한다.

판매 첫 달 1209좌를 모았던 외 외화적

금은 지난해 12월 746좌, 올 1월 183좌 등이 가입됐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월에는 894좌가 몰리면서 전월보다 5배 가까이(388.5%) 증가했다. 3월 외화적금 가입 계좌도 495좌를 기록했다.

'해피라이프 외화적금'은 미국달러 기준 월 50달러부터 최대 5000달러까지,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0.85%이지만 최고 연 1.15%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원화를 외화로 전액 환전 적립 ▲환전거레 이용 실적 ▲월불입액 자동이체 적립 ▲비대면채널 신규 가입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하나투어와 제휴를 맺어 외환관련 수수료를 우대하고 현금지급(캐시백) 혜택을 준다.

가입방법은 은행창구와 인터넷뱅킹은 물론 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으로 확대해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다함께코리아’ 안정펀드

한국투자신탁 9일 운용

10조7000억원 규모

총 10조7000억원 규모의 '다함께코리아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가 오는 9일께 본격 운용에 들어가 주가 급락을 막는 안전망 역할을 맡게 된다.

증안펀드 모(母)펀드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는 9일 증안펀드 설정을 마치고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증안펀드는 산업은행, 5대 금융지주 등 23개 금융기관과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이 출자하는 총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 대상을 확정된 뒤 실제 투자를 집행할 때 필요한 자금을 납입하는 캐피털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영되며, 1차 자금 납입 규모는 3조원가량이다.

증권 유관기관이 출자하는 7600억원은 시장 안정을 위해 전체 증안펀드보다 먼저 조성, 집행되며 향후 전체 펀드에 통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